

남성의 권력에 의해 희생된 여성: 『라파치니의 딸』

류다영
중원대학교 글로벌언어 교양학부

Victimized woman under masculine power: *Rappaccini's Daughter*

Da-Young Ryu

Global Language Liberal Arts School, Jungwon University

요 약 나다니엘 호손은 죄와 벌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작품의 주제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그가 제시한 이러한 주제들을 통해 독자는 인간 내면을 더 심층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그는 『라파치니의 딸』에서 남성들의 권력이 한 여성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그녀를 파멸로 몰고 가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우선 그녀의 아버지 라파치니 박사는 자신의 정원에 독성을 가진 식물을 재배하면서 자신의 딸인 베아트리에에게도 치명적인 독성을 부여하는 이기적인 과학실험을 자행한다. 이 실험이 베아트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녀의 파멸에 원인을 제공한다. 베아트리에와 사랑에 빠지게 된 지오바니는 그녀와 함께 독성으로부터 해독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독제를 건네주었지만 그녀가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발리오니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지오바니를 이용하여 베아트리에가 해독제를 마시도록 조종한 인물이다. 따라서 세 남자의 이기심과 질투심 같은 악의 고리가 서로 엉켜서 베아트리를 파멸로 이끌어 갔으므로 결국 그녀의 죽음은 그녀 자신이 품고 있는 독성 때문이 아닌 외부의 독성, 즉 남성의 이기적인 권력에 의해 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bstract Nathaniel Hawthorne mainly deals with the ethical problems of sin and punishment in his works. Through these topics, readers have the opportunity to look more deeply into human nature. In *Rappaccini's Daughter*, he explains how the power of men influences a woman's life and drives her to death. Her father, Rappaccini, cultivates plants in his garden that are toxic and conducts a scientific experiment that gives his daughter Beatrice a fatal level of toxicity. He insists that this experiment was performed to protect Beatrice, but ultimately, it causes her death. Giovanni, who falls in love with Beatrice, provided an antidote in the attempt to detoxify her, but it resulted in her death. Finally, Baglioni used Giovanni to steer Beatrice to drink the antidote to defend his social status. The three men's selfishness and jealousy led to the demise of Beatrice, who eventually died from the selfish power of men and not due to her toxicity.

Keywords : Beatrice, Hawthorne, Masculine Power, Rappaccini, Toxicity

1. 서론

나다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e, 1804-1864)은 미국의 대표적인 19세기 작가이다. 그는 죄와 벌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작품의 주제로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자신의 조상들이 17세기의 퀘이커

(Quaker) 교도들 처형과 1692년의 세일럼(Salem)에서의 마녀재판 등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대한 죄의식과 관련이 있다[1]. 이러한 그의 역사의식과 윤리의식, 그리고 독특한 주제의식과 함께 그의 문학 형식의 기교는 그를 최고의 미국적 작가의 자리에 앉도록 하였다. 호손 문학의 가치는 인간 내면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에 있으며,

*Corresponding Author : Da-Young Ryu(Jungwon Univ.)

Tel: +82-43-830-8651 email: modestar99@jwu.ac.kr

Received July 27, 2018

Accepted October 5, 2018

Revised (1st August 24, 2018, 2nd August 28, 2018)

Published October 31, 2018

인간성에 대한 호손의 심층심리학적 이해는 그의 예술론이 근거하고 있는 모호성과 양면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2]. 그는 그 당시의 소설과 구별되는 로맨스 장르를 새롭게 만들어갔는데, 그의 상징법과 알레고리, 모호함과 환상적 묘사는 독창적인 그만의 영역을 구축하게 하였다. 그는 “로맨스는 진실로 무언가를 가르치고, 효과적인 운용을 산출하는 것이다”[3]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훈적인 내용들을 겉으로 드러내어 표현하기 보다는 포착하기 어려운 과정을 통해 미묘하게 전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작가가 지나치게 도덕적인 교훈만을 강조하게 되면 내용이 부자연스러워질 뿐 아니라 작품 자체의 생명력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이러한 문학 스타일은 그의 작품을 더 모호하고 복잡하게 만든다.

호손은 과학기술이 자연적 제약을 극복하여 물질적인 개선을 이루어줄 수 있다는 과학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포용하거나 인간의 원초적 불완전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그는 과학이 가지고 있는 모순들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과학의 힘으로 얻게 된 편의성에 대해 인간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는 이러한 과학의 위력이 제약과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그의 작품들을 통해 경고한다. 또한 인간이 이러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가지게 되는 오만함으로 인해 죄를 짓고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음을 예견한다.

호손의 작품 중에서 가장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독자들로 하여금 많은 질문을 남기며, 이러한 과학기술의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담고 있는 『라파치니의 딸』(*Rappaccini's Daughter*)은 그의 단편소설 중 내용이 상당히 길고 정교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과학자로서 명성이 높은 라파치니(Rappaccini) 박사의 딸인 베아트리카(Beatrice)라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는 단테의 신곡을 연상시키는 에덴동산과도 같은 정원이 있으며, 아담과 이브와 같은 등장인물들의 복잡한 내면이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 있다. 호손의 작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내용이 복잡한 이유는 그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악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라파치니의 딸』에서 베아트리카는 그의 아버지인 라파치니, 연인인 지오바니(Giovanni), 그리고 그녀를 시기하는 발리오니(Baglioni) 교수라는 세 남자의 권력과 이기심에 지배를 받고 결국 희생을 당한다. 이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그녀를 판단하며 그녀를 과멸로 이끈다. 이러한 상황은 이 작품의 제목으로부터도 유추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의 제목이 중심인물인 그녀의 이름 ‘베아트리카 라파치니’가 아니라 ‘라파치니의 딸’로 표현된 것은 그녀가 아버지인 라파치니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누군가의 딸이라는 표현은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베아트리카의 삶은 남성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희생당하며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남성의 권력과 이기심에 의해 여성인 베아트리카가 어떻게 지배를 받고 희생당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라파치니 박사의 이기적인 실험

『라파치니의 딸』은 지오바니 구아스콘티(Giovanni Guasconti)라는 한 청년이 이탈리아로 유학을 오게 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하숙을 하게 되는데, 그가 거처하게 되는 오래된 방은 뒤편 창문을 통해 이웃집의 정원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구조이다. 지오바니가 그 정원을 처음 바라보았을 때, 정원은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하여 에덴동산과도 같은 낙원처럼 여겨졌다. 정원에는 에덴동산과 같은 샘물이 흐르는데, 지오바니는 정원 한 가운데에 있는 조각된 대리석 분수대로부터 물이 계속 솟아오르는 것을 마치 불멸의 정령처럼 느낀다. 하지만 그는 곧 그 아름다움 속에 감춰진 부조화의 인공미를 발견하게 된다. 오래 되어 폐허처럼 낡은 정원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꽃들의 조화는 이 정원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정원을 바라보던 어느 날 지오바니는 라파치니 박사와 그의 딸인 베아트리카를 보게 되는데, 그들의 서로 대조적인 분위기는 지오바니의 마음을 흔들여 놓는다. 라파치니는 이 정원의 창조주인 신과 같은 존재이며 베아트리카는 에덴의 거주자, 이브인 것이다.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라파치니 박사는 평범한 정원사의 모습이 아니라 지성과 교양이 섞여 있는 모호한 이미지를 풍긴다. 라파치니를 처음 본 지오바니는 그에게서 따뜻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치 정신병자와 같은 인물로 표현한다.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평범한 일꾼의 모습이 아닌, 키가 크고 메마르고 아파보이고 혈색이 안 좋은 얼굴로 학자의 검은색 옷을 입은 모습이었다. 그는 회색빛의 머리와 가는 턱수염을 가진 중년 넘은 남자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얼굴은 지성과 교양을 지녔지만, 심지어는 젊었을 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본 적이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얼굴이었다.

His figure soon emerged into view, and showed itself to be that of no common laborer, but a tall, emaciated, sallow; and sickly-looking man, dressed in a scholar's garb of black. He was beyond the middle term of life, with grey hair, a thin grey beard, and a face singularly marked with intellect and cultivation, but which could never, even in his more youthful days, have expressed much warmth of heart. [4]

지오바니가 라파치니를 묘사한 말 중에서 “학자의 검은색 옷”, “혈색이 안 좋은”, “아파보이고” 등의 표현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신과 같은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겉모습은 지성과 교양을 지니고 있지만 그의 속마음은 따뜻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서 라파치니의 이중성을 이미 간파한 듯 보인다. 게다가 작품의 중반부에 지오바니가 그의 아버지의 옛 친구인 발리오니 교수를 길에서 만나 이야기하는 도중 우연히 지나친 라파치니의 모습을 묘사할 때는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같이 훨씬 더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지오바니는 라파치니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정원의 식물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한다. 반면, 베아트리카는 라파치니와 대조적으로 밝은 모습이며, 식물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자매’라는 표현으로 부른다. 자신이 만든 정원을 만질 수도 없는 라파치니 박사와 자신과 같은 운명을 지닌 숲을 자매라 여기며 돌보는 베아트리카의 모습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호손은 어두운 악이 존재하는 장소에 아름답고 밝은 이미지를 상반되게 배치함으로써 악이 자행되는 현장을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만든다. 박익두는 이러한 애매성(ambiguity)의 의도적인 사용이 악이라는 요소가 선과 공존한다는 상황을 보여주며, 악이라는 어두

운 요소를 실존시키기 위해서는 상반되는 선, 미, 밝음 등의 요소들을 동시에 나타내려는 호손의 시학적 의도가 형상화된 것이라고 본다[5].

라파치니 박사가 과학자로서의 명망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는 지오바니가 묶고 있는 하숙집의 여주인인 리자베타(Lisabetta)와 발리오니 교수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리자베타의 말에 따르면, 라파치니 박사가 “나폴리까지도 그 명성이 알려졌을” 정도로 유명하고, “식물들의 정수를 증류해서 마력적인 효능이 있는 약”을 만들어 낼 정도로 능력이 있는 과학자임을 알 수 있다. 발리오니 교수는 라파치니 박사를 시기하고 배척하려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그의 능력은 인정한다. 발리오니는 “라파치니처럼 탁월한 기술을 가진 의사에게 당연히 받을 만한 찬사”라고 말하고, 그를 “어쩌면 파두아에서 아니 이태리 전체에서도 가장 탁월한 예외적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이와 같이 유능한 과학자이지만 그가 냉정하고 이기적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자신의 딸을 실험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또한 그 실험의 내용이 독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라파치니는 그의 집에 인공적인 정원을 만들어 그 안에 독성을 지닌 식물을 기르는 연구에 몰두한다. 그는 자신을 신과 동격으로 여기며 정원의 나무들을 주사약으로 재배하고, 새로운 실험으로 통해 식물을 창조해내는 교만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다[6]. 창조주로서 힘과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의 정원을 에덴동산과 같은 자신만의 세계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과학실험을 위해 자신의 딸을 마치 무생물처럼 연구하는 죄를 범하는 이기적인 냉혈한이며 독선적인 인물이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과학기술이 인간존재의 자율성을 구현하기 위해 도움을 주기 보다는 인간통제를 벗어나게 됨으로써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순간 과학기술은 어두운 악으로써 작용하게 됨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호손이 과학기술을 긍정적인 힘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라파치니는 또한 자신이 만들어놓은 식물과 딸의 독성으로부터 물들지 않으려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입과 코를 마스크로 막는 등 이기적인 면모를 보인다. 라파치니의 이러한 이중성은 그의 악행을 구체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의 지적 교만은 자신의 딸 베아트리카의 파멸과 연결된다. 라파치니 박사가 베아트리카를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지만 평범한 인간

을 독성을 품은 인공적인 모습으로 바꿈으로써 그녀를 지배하고 희생시켰으므로 그는 그녀가 파멸에 이르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아버지라는 지위를 행사하여 여성인 딸을 지배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남성권력이다.

아담이 있어야 완성되는 자신만의 세계에 지오바니를 끌어들인 라파치니는 그가 베아트리체와 교제를 하며 독성에 전염되는 것을 간섭하지 않고 지켜본다. 지오바니가 베아트리체의 독성에 중독되었음을 알게 된 라파치니는 자신이 계획하던 순간이 온 것 같은 승리감에 빠져 “서로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랑의 대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거라!”라고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 듯 말을 한다.

바로 그 순간 라파치니의 모습이 현관 입구로부터 나타나더니 대리석 분수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창백한 얼굴의 과학자는 아름다운 두 남녀의 모습을 승리감에 넘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듯했다. 그 표정은 일생에 걸쳐 한 그림이나 조각품을 완성해 낸 예술가가 마침내 이룬 자신의 성공에 만족해하는 그런 표정이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굽은 몸을 일부러 세우려고 애썼다. 그는 자식들에게는 축복을 갈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들 위로 두 손을 내뻐었다. 그러나 그 손은 그들의 삶의 흐름에 독을 뿌린 바로 그 손이었다. 지오바니는 몸을 떨었다. 베아트리체는 경련이 일 듯 몸서리치며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At the same moment, the figure of Rappaccini emerged from the portal, and came slowly towards the marble fountain. As he drew near the pale man of science seemed to gaze with a triumphant expression at the beautiful youth and maiden, as might an artist who should spend his life in achieving a picture or a group of statuary, and finally be satisfied with his success. He paused-his bent form grew erect with conscious power, he spread out his hand over them, in the attitude of a father imploring a blessing upon his children. But those were the same hands that had thrown poison into the stream of their lives! Giovanni trembled. Beatrice shuddered very nervously, and pressed her hand upon her heart. [4]

두 사람을 축복하는 라파치니의 이러한 행동은 지오바니를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이며, 드디어 지오바니가 라파치니의 정원에 거주하게 된 아담과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듯 보인다. 그들이 부부와 같은 결합을

이룸으로써 라파치니가 구상한 에덴이 완성된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은 라파치니가 자신의 딸 뿐 아니라 딸이 사랑하는 남자까지도 그의 실험 대상으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라파치니의 실험에 대한 동기가 딸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베아트리체가 “자신의 자식에게 비참한 운명”을 안겨주었다고 아버지를 탓할 때 라파치니가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다.

“어리석게도 그게 무슨 말이나? 어떤 힘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놀랄 만한 능력을 부여받았는데도 그게 비참하단 말이나? 아무리 힘센 자라도 숨결 하나로 제압할 수 있고, 것처럼 아름다우면서도 것처럼 무서울 수도 있는 게 비참한 것이란 말이나? 그렇다면 넌 모든 악을 당하기만 하고 대적 못하는 약한 여자가 되길 바랐단 말이나?”

“What mean you, foolish girl? Dost thou deem it misery to be endowed with marvellous gifts against which no power nor strength could avail an enemy? misery, to be able to quell the mightiest with a breath? misery, to be as terrible as thou art beautiful? Wouldst thou, then, have preferred the condition of a weak woman, exposed to all evil and capable of none?” [4]

딸에게 독성을 주입한 그의 실험에는 “모든 악을 당하기만 하고 대적 못하는 약한 여자”에게 그에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려는 목표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외부의 질병으로부터 육체를 지키고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독성이 그녀를 세상의 악덕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딸을 인간 고유의 미약함과 한계 그리고 여성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는 파렴치한 남성으로부터 여성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그 당시의 여성상의 인식에 의한 것 이라고도 볼 수 있다[7]. 그러나 자기 딸을 가장 강력한 존재로 만들겠다는 과보호적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딸을 영원히 자기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고 싶은 무의식적인 충동이 내재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8]. 따라서 라파치니는 발리오니가 주장하듯이 사악한 과학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왜곡시켰으며 자기만의 완벽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딸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녀를 관찰 대상으로 전락시켜 결국 희생을 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즉 표면상으로는 자신의 딸을 구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녀에게 독성을 주입하였다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딸을 오로지 실험대상으로만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은 딸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자신만의 독단적인 결정이다. 게다가 그는 그녀를 고립시킴으로써 자신의 딸을 무지하고 의존적으로 그래서 매우 약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주장은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다.

베아트리체가 원하는 것은 ‘두려움 없이 사랑받는다’ 것이었다. 하지만 라파치니 박사의 실험은 그녀가 철저하게 다른 남성들과 고립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그녀는 자신의 독성을 ‘놀라운 선물’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묘사한다. 라파치니는 베아트리체에게 아버지의 말을 순순히 듣는 순종적인 면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의 의도대로 그녀의 삶을 비참한 운명으로 조작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두려운 존재가 되어 고립되고, 이로 인해 느끼는 외로움과 같은 모든 고통들을 견뎌내야만 했다. 그러므로 베아트리체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르는 전 생애동안 아버지라는 한 남성의 권력과 이기적인 실험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2 지오바니의 신뢰 없는 사랑

지오바니는 베아트리체를 과멸에 이르게 하는 세 남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 그녀에게 해독제를 건네줌으로써 그녀를 직접적으로 죽게 만드는 인물이다. 지오바니는 하숙집 창문을 통해 베아트리체를 보게 되고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첫 눈에 반한다. 그는 그녀를 “마치 옛 우화 속에 나오는 달콤한 향기를 먹고 사는 요정처럼 식물들의 향기를 들이마시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지오바니는 베아트리체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베아트리체는 아름답고 순결하며 착한 영혼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녀의 내부에는 치명적인 독성이 존재한다.

지오바니는 자신의 사랑을 진심이라고 믿었지만 그녀 내부의 독성으로부터 자신도 몰든 게 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의 사랑에 대한 진심을 의심하고 그녀를 과멸로 이끌게 된다. 지오바니는 베아트리체의 사랑이 자신을 이용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사랑을 비난하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독성은 베아트리체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지오바니는 그녀의 독성을 중성화시키기 위해 해독제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 그의 계획은 그녀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

베아트리체에 대한 지오바니의 사랑은 진실한 것일까? 그가 베아트리체를 처음 보았을 때, 그의 반응은 상당히 모호했다. 그는 이것이 현실인지 상상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그녀를 일종의 이상적인 객체로 인식했다. 그는 정원을 가꾸는 라파치니의 모습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불안감을 가졌는데, 베아트리체를 처음 봤을 때도 이러한 기이함을 느낀다.

지오바니가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는 동안 그의 상상력은 병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베아트리체는 화초들의 자매처럼 아름답고, 아니 꽃들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꽃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지면서도 장갑을 끼어야 만질 수 있고 마스크를 써야 접근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Giovanni's fancy must have grown morbid, while he looked down into the garden; for the impression which the fair stranger made upon him was as if here were another flower, the human sister of those vegetable ones, as beautiful as they—more beautiful than the richest of them—but still to be touched only with a glove, nor to be approached without a mask. [4]

식물을 다루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독특했는데, 정원의 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의심을 가질 정도였다. 그러나 베아트리체를 가까이 관찰했을 때, 두려움은 그의 환상 안에 녹아버렸다. 하지만 그는 베아트리체를 계속 만나면서 자신의 이러한 상상력이 점점 병적이 되어 감을 느낀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라파치니 박사의 정원을 보던 창문을 피하게 된다. 그 정원에 계속 자신도 모르게 눈길을 주다가 추악하고 기괴스런 모습이 그의 시야를 망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냉담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의 뿌연게 응축된 꿈이 명확한 현실로 바뀌게 되었다.

지오바니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어디까지가 실제상황이고, 어디까지가 자신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발리오니를 찾아간다. 발리오니는 그가 사람보다 과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마저도 새로운 실험의 대상으로 여기는 등 인간의 생명을 언제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해준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지오바니는 또 한 번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다. 정원에 있던

뱀이 꽃에서 떨어진 물방울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보고 그는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그는 베아트리체를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과 기이한 현상으로 인한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삶의 모순, 열정과 이성, 상상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지오바니는 이성적 판단의 기준을 발리오니의 혐의에 대한 의심에서 개인의 욕망으로 치환시킨다[9]. 그는 발리오니의 경고를 무시하고, 리자베타의 도움으로 비밀 입구를 통해 정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베아트리체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게 된 순간 그녀에게 접근하는 일은 그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처럼 생각된 것이다. 그녀가 천사건 악마건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그녀의 영향권에 들어서서, 점점 더 원을 좁혀가며 그를 계속 앞으로 세차게 몰아가는 절대적인 힘에 복종하는 수밖에 없었다.

The instant he was aware of the possibility of approaching Beatrice, it seemed an absolute necessity of his existence to do so. It mattered not whether she were angel or demon; he was irrevocably within her sphere, and must obey the law that whirled him onward, in ever lessening circles, towards a result which he did not attempt to foreshadow. [4]

의심을 마음에 품은 채 지오바니는 베아트리체를 만나기 시작한다. 그가 목격한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그녀에게 물어봤을 때 그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사람들의 소문을 믿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나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외부적 감각이 모두 허구라는 것을 믿으세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말은 진실입니다”라며 그에게 믿음을 주었다. 이에 대해 그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것만 믿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겉으로는 사실인 듯 보이지만 그 본질을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음을 이야기한 베아트리체의 진실함과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응시의 요구를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즉 진실임에도 꾸며지고 왜곡될 수 있는 욕망의 대상인 입 속의 이야기를 믿겠다고 하는 지오바니의 판단력은 이미 인간의 이성적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며, 만남의 증표로 관목을 꺾으려는 지오바니를 밀쳐내는 베아트리체에 대해 애초 정원과 식물들에 가졌던 의심을 인간과 자연의 애정에 따르는 마땅함으로 치부하고 있는 지오바니의 모습은 합리적 논증의 틀이 깨져 있음을 드러낸다[10]. 지오바니의 베아트리체에 대한 사랑은 상상력과 공포에서 시작하

였으나 그녀와의 만남을 계속하면서 완전한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 지오바니가 치명적인 독을 가진 꽃을 만지려고 하자 베아트리체는 비명을 지르며 “만지지 마세요! 그걸 만지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라고 말하며 그를 보호하게 되는데, 이 모습에 지오바니는 그녀에게서 인간적인 면을 느끼게 되고 추악해 보이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가 베아트리체를 사랑하는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독성에 중독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베아트리체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숨김없는 믿음을 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그녀에게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음을 지오바니는 느낀다. 또한 두 사람은 분명히 사랑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서로 손을 잡는 다거나 입을 맞춘다거나 하는 육체적 접촉이 없다. 지오바니가 그러한 경계선을 넘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베아트리체가 슬프고 굳어진 표정으로 몸서리치는 것을 보고 그는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지오바니가 그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 지오바니의 베아트리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발리오니가 지오바니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 발리오니가 방안에 무슨 향기가 퍼져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자 지오바니는 자신의 숨결에 독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미에게 숨을 내뿜게 된다. 그 순간 거미는 발작을 일으키다가 죽게 된다. 그는 처음 정원에서 보았던 뱀의 죽음과 거미의 죽음을 연결하면서 다시 의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그의 손에 있던 꽃다발이 그의 호흡으로 인해 시들기 시작하자 그의 얼굴은 대리석처럼 하얗게 변하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꼼짝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베아트리체의 독성에 중독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는 베아트리체만이 자신의 숨결이 죽이지 않을 유일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녀를 차라리 죽였으면!”하고 분노한다. 이렇게 자신이 저주받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는 그녀의 매력을 떨쳐버리기 힘들었다.

조금 전만 해도 분노와 절망감이 하도 격렬해서 그는 그녀에게 오직 저주의 눈길을 퍼붓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막상 그녀와 이렇게 마주 대하고 보니 떨쳐 버리기에는 너무 생생한 영향력에 그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 그녀 주위를 어떤 악의 안개가 감싸더라도 베아트리체의 참 모습은 천국의 천사라고, 그를 확신시켜 주었을 여러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런 높고 강한 믿음이 이제 지오바니에게 불가능하긴 했지만, 베아트리체와 이렇게 함께 있음은 아직도 그 마력을 완전히 잃

지 않고 있었다.

At the moment ago, his wrath and despair had been so fierce that he could have desired nothing so much as to wither her by a glance. But, with her actual presence, there came influences which had too real an existence to be at once shaken off; ... recollections which, had Giovanni known how to estimate them, would have assured him that all this ugly mystery was but an earthly illusion, and that, whatever mist of evil might seem to have gathered over her, the real Beatrice was a heavenly angel. Incapable as he was of such high faith, still her presence had not utterly lost its magic. [4]

지오바니는 베아트리카의 순수한 영혼을 끝까지 믿고 싶었다. 하지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베아트리카는 지오바니의 이러한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정원에 대한 실체를 전한다.

“아, 알겠어요!” 베아트리카가 비명을 질렀다. “제 아버지의 치명적 과학이에요! 아니, 아니에요, 지오바니, 내가 아니라고요! 절대, 절대로! 난 지오바니를 사랑하고 잠시 함께 있기를 꿈꿨을 뿐이에요. 그 후 지오바니를 떠나보내고 가슴속에 지오바니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 지오바니, 믿어주세요, 내 육신이 독으로 자랐지만 내 정신은 신의 창조물이고, 그 양식으로 사랑을 갈구해 왔어요. 하지만 제 아버지는 - 우리를 이 끔찍한 인연으로 결합시킨 거죠. 그래요. 날 걷어차고, 짓밟고, 날 죽여주세요. 오, 당신의 그런 말을 듣고 난 후 죽음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하지만 전 아니에요. 맹세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I see it! I see it!" shrieked Beatrice. "It is my father's fatal science! No, no, Giovanni; it was not I! Never! never! I dreamed only to love thee and be with thee a little time, and so to let thee pass away, leaving but thine image in mine heart; for, Giovanni, believe it, though my body be nourished with poison, my spirit is God's creature, and craves love as its daily food. But my father, - he has united us in this fearful sympathy. Yes; spurn me, tread upon me, kill me! Oh, what is death after such words as thine? But it was not I. Not for a world of bliss would I have done it." [4]

베아트리카는 자신의 독성이 그에게 준 끔찍한 운명은 자신의 아버지인 라파치니 박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또한, 비록 자신이

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지오바니에 대한 사랑은 순수한 것이라고 말한다. 지오바니와 베아트리카의 관계는 정신적인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지만,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준 것은 역설적이게도 라파치니의 이기적인 과학실험에 의한 것이었다. 반면에, 지오바니에 대한 베아트리카의 애정은 점점 더 깊어져간다. 따라서 그녀는 지오바니가 발리오니의 해독제로 저주받은 독성에서 벗어나자고 권유하였을 때, 그의 요구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결심한다. 이것은 여성이 사랑이라고 포장된 남성의 권력에 의해 굴복되었음을 증명한다. 베아트리카는 자신이 먼저 그 약을 마실 테니 실험의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말한다. 그녀는 약을 마신 후의 결과를 이미 예견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연인인 지오바니가 똑같은 행동을 자행하지 않기를 바란 것이다. 그 순간 등장한 라파치니 박사에게 베아트리카는 원망하듯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었어요.” 베아트리카는 땅 위로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요. 아빠, 전 아버지가 저의 존재와 섞으려고 애썼던 그 약이 꿈처럼 사라져갈 곳으로 가고 있어요. 에덴동산의 꽃들 속에서는 더 이상 나의 숨결을 오염시키지 않을 이 독화들의 향기처럼 말이죠. 잘 있어요, 지오바니, 당신의 증오의 말들은 내 가슴 속에 남덩이처럼 남아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면 그 역시 사라지겠지요. 아, 처음부터 내 본성보다는 당신의 본성에 더 많은 독이 있던 게 아닐까요?”

"I have fain have been loved, not feared," murmured Beatrice, sinking down upon the ground. "But now it matters not. I am going, father, where the evil which thou hast striven to mingle with my being will pass away like a dream—like the fragrance of these poisonous flowers, which will no longer taint my breath among the flowers of Eden. Farewell, Giovanni! Thy words of hatred are like lead within my heart; but they, too, will fall away as I ascend. Oh, was there not, from the first, more poison in thy nature than in mine?" [4]

호손은 이 마지막 장면에서 베아트리카에 대해 “자연에서 받은 그녀의 육신과 영혼이 라파치니 박사에 의해 유린되었고, 그녀에게는 독이 생명이 되고 해독제는 죽음으로 연결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인간이 발달시킨 과학의 왜곡된 사용의 결과로 인해 파멸을 맞이한 치명적 운명의 희생자인 것이다.

지오바니는 해독제로 인해 두 사람이 평범하게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그 꿈은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발리오니의 말을 그대로 믿은 그의 어리석음과 그녀의 사랑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그는 베아트리카가 없는 절대 고독의 상태가 된 것이다. 지오바니가 그녀의 순수함을 믿었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지는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그녀에게 해독제를 마시도록 권유하고 그녀가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베아트리카가 죽어갈 때 “처음부터 나의 본성보다는 당신의 본성에 더 많은 독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라고 한 질문은 지오바니가 베아트리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베아트리카를 사랑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순결함을 의심한 지오바니의 행동에 실망하여 그의 마음속에 자신보다 더 치명적인 독성이 있지는 않았는지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 남성의 자기중심적인 욕구와 신뢰 없는 사랑의 결과로 한 여성이 희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3 발리오니의 질투심과 비열함

발리오니는 지오바니 아버지의 친구이면서 파두아 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이다. 그는 라파치니 박사의 학문적 업적과 과학적 명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과학적 지식이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경계하는 인물이다. 그는 라파치니의 독성 실험에 대한 효과와 탁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오바니에게는 그를 “인간의 생명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니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도덕적으로 비난한다. 그가 라파치니를 비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딸인 베아트리카 때문이다. 라파치니 박사는 그의 딸에게 과학적인 지식을 깊이 있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로 인해, 발리오니는 베아트리카가 자신의 교수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교수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그가 라파치니의 혁신적인 실험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이유이며 그가 냉소적이게 된 연유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발리오니는 표면상 라파치니 박사의 위험한 과학적 시도에 대한 대척점을 두는 인간적 신념과 이성에 바탕을 둔 모습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발리오니는 라파치니에 대한 질투와 편견, 열등의식에 의해 지오바

니를 대리인으로 세워 자신의 유약한 현실을 옹립하려는 내재된 악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10]. 따라서 라파치니는 발리오니가 대변하는 세계의 가운데 실험의 정원을 창조함으로써 그 이상을 구현하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두 인물은 근본적으로 순결한 정신성에 대한 강한 추구와 그것을 과학이나 칼로 대변되는 힘으로 구현하려는 의지에서 서로 닮아 있다[11].

발리오니는 라파치니를 경계하기 위하여 지오바니에게 계속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그 또한 라파치니 박사의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한다. 또한 그의 방을 찾아가서 알렉산더 대왕과 인도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베아트리카를 의심하도록 만든다. 발리오니는 베아트리카의 존재가 없다면 그의 미래를 방해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지오바니를 조종하기 시작한다. 발리오니는 지오바니에게 “그녀를 구하기에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라고 말하며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녀에게 해독제를 마시게 하여 그녀를 구원해야한다고 자신의 행동을 미화시킨다. 이와 같은 발리오니의 의도와 행동을 보았을 때, 베아트리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라파치니 박사이고 그녀를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지오바니이지만, 지오바니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를 유혹하여 베아트리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발리오니 박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베아트리카를 과멸로 몰고 간 치명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라파치니 박사가 과학적 지식을 왜곡되게 사용하고 있고, 그의 딸인 베아트리카도 그의 실험대상 중의 하나일 만큼 이기적인 인물이라고 비난한다. 그가 지오바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라파치니 박사의 실력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깔려있지만, 그는 이러한 의도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지오바니를 도와주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그에게 접근한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다음의 발리오니의 말은 그의 비열함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더욱이 저 애를 내 손에서 나꿔채서 라파치니가 악마 같은 실험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무례한 것이야. 라파치니의 딸도 문제야! 주의해야지. 학식 있는 라파치니, 자네가 생각도 못한 곳에서 자네를 좌절시킬지 모르네!

Besides, it is too insufferable an impertinence in

Rappaccini, thus to snatch the bud out of my own hands, as I may say, and make use of him for his infernal experiments. This daughter of his! It shall be looked to. Perchance, most learned Rappaccini, I may foil you where you little dream of it! [4]

발리오니가 지오바니에게 해독제를 주며 베아트리체와 같이 나눠 마시라고 권유하는 행동은 베아트리체에게 직접 독소를 주입하여 실험을 자행한 라파치니 박사의 행동과 본질적인 면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12].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인간을 실험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발리오니는 해독제의 효능을 확신하지 못한 채로 그 역시 실험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그 해독제가 죽음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발리오니를 살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해독제가 단순히 베아트리체의 독성을 중화시켜 자신의 위치를 넘볼 수 없는 평범한 인간으로 만들고자 할 의도였다고 하면 도덕적으로 그를 비난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걸로서는 지오바니와 베아트리체를 도우려는 행세를 하고 속으로는 베아트리체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발리오니의 이중성은 그의 내부에 존재하는 비열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라파치니에 대한 그의 질투로 시작된 그의 비열함은 결국 베아트리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현실적인 원인이 된다. 또한 발리오니가 지오바니에게 했던 말이 독으로 가득한 것이었다면, 그 독에 물들어버린 지오바니가 베아트리체에게 퍼붓는 말들은 더 치명적인 독이 든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6]. 따라서 베아트리체를 대면하여 직접적인 행동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과멸로 이끌고 간 세 남자 중에서 발리오니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치명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베아트리체는 해독제를 마시고 죽음을 맞이한다. 베아트리체의 몸은 독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독제가 역으로 그녀에게는 독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녀의 죽음을 통해 해독제가 그녀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회복해줄 것이라는 발리오니의 조언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그것이 의도적인 거짓임은 분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발리오니의 의학적 조언이 믿을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해진 것이고 보면, 중독된 지오바니가 역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라져버린 것이다[11]. 베아트리체의 죽음을 보고 발리오니는 “라파치니! 라파치

니! 이게 당신 실험의 결과인가?”라고 외친다. 그의 말은 공포가 섞인 승리의 말투로 묘사되는데, 이것은 그가 베아트리체의 죽음을 비통해 하기 보다는 그 결과에 깜짝 놀랐다는 것을 암시한다. 오히려 다소 승리감을 표현한 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 말은 베아트리체의 죽음이 자신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있는데, 자신이 지오바니에게 해독제를 주어 그녀의 죽음에 한 몫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오직 라파치니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13].

발리오니가 의도적으로 지오바니를 이용하여 베아트리체에게 해독제를 마시도록 조종한 이유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때문이다. 자신의 지위를 여성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발리오니는 여성의 삶을 무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남성권력이다. 베아트리체를 직접적으로 죽이려는 의도를 하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해독제를 통해 그녀가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내조를 하는 평범한 여성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분명하다. 그리고 결국 발리오니는 해독제를 제공함으로써 베아트리체를 즉각적인 죽음으로 몰고 갔다. 따라서 발리오니는 교수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여성을 희생시킨 또 다른 남성 권력이다. 따라서 그의 과학기술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여성을 희생시키는 남성권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세 남자가 베아트리체의 죽음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이는 호손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의 특징 중 일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레버렌즈(Leverenz)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정적 천사 대 매춘부란 호손의 판에 박힌 이분법에서 빠진 세 번째 용어가 여성들의 독립과 야심에 대한 남성들의 두려움이다. 가장 기억할만하게도 『라파치니의 딸』(1844)에서 발리오니 교수는 베아트리체를 전문직상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베아트리체의 과학적 야심에 대한 그의 두려움은 남성적 망상으로 드러난다. 그 여자의 영혼이 마침내 가부장적 통제에서 벗어날 때, 그 결말은 발리오니, 지오바니, 그리고 라파치니를 베아트리체의 육체를 운명 지워왔던 남성 간 경쟁에 있어서 똑같이 공범임을 제시한다.

The missing third term in Hawthorne's stereotypical dichotomy of domestic angel versus prostitute is men's fears of women's independence and ambition. Most

memorably, in “Rappaccini’s Daughter”(1844), Professor Baglioni sees Beatrice as a professional threat. But his fear of Beatrice’s scientific ambition turns out to be a male hallucination. As her spirit at last escapes patriarchal controls, the ending presents Baglioni, Giovanni, and Rappaccini as equally complicit in the male rivalry that has doomed her body. [14]

베아트리체의 죽음을 통해 과학자들의 선입견과 경계 심리가 한 여성의 인격체를 어떻게 조종하고 희생시키는지를 알 수 있다. 발리오니는 자신의 전문직상의 위협으로 베아트리체를 경계하고 파멸에 이르게 했지만 결국 라파치니, 지오바니, 그리고 발리오니라는 세 남성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세 사람 모두 베아트리체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이기적인 관심을 보이었을 뿐 진정으로 그녀를 아끼고 걱정해준 사람은 없었다[15].

3. 결 론

호손은 현대인들의 인간관계, 인간의 양면성, 인간의 욕망과 오만함 등의 내용을 자신의 작품을 통해 진지하게 다룬 작가이다. 그가 제시한 이러한 주제들을 통해 독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있으며, 인간 내면을 더 심층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인간 불행의 원인이 그들 내면의 이기주의적 본성에 있고, 마음속에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어떠한 사회개혁의 시도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6]. 박용준은 호손이 사회 질서가 개인의 삶을 억압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저항하면서도, 사회와 완전히 분리되려는 개인의 절대 자유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말한다[10]. 개인의 삶은 공동체의 삶과 연결이 되고, 더 나아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손은 인간의 삶에 대해 성찰을 하던 때인 17세기 청교도적인 삶에서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개인의 문제에 몰두했던 작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호손은 이러한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모호한 방식으로 독자들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돕는다. 그는 『라파치니의 딸』에서 과학의 발달과 접목하여 남성들의 권력

이 한 여성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그녀를 파멸로 몰고 가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라파치니의 딸인 베아트리체는 그녀의 아버지인 라파치니 박사, 사랑하는 연인인 지오바니, 그리고 자신과 아버지를 시기하고 경계하는 발리오니 교수에 의해 지배를 받고 희생을 당한다. 우선 그녀의 아버지 라파치니 박사는 자신의 정원에 독성을 가진 식물을 재배하면서 자신의 딸인 베아트리체에게도 치명적인 독성을 부여하는 등 이기적인 과학실험을 자행한다. 베아트리체는 아버지의 이러한 실험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채 삶을 살아간다. 베아트리체와 사랑에 빠지게 된 지오바니는 그녀를 믿지 못하고 발리오니가 주는 해독제를 그녀가 마시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그녀가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발리오니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지오바니를 이용하여 베아트리체가 해독제를 마시도록 조종한 인물이다. 이 세 명의 남성은 여성인 베아트리체를 이용하고 지배하며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을 이용해 파멸에 이르도록 한 남성권력이라고 볼 수 있다.

라파치니의 딸에 대한 독성실험이 부정에서 우리나라와 그녀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키고 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이기심으로 자행된 것이므로 베아트리체의 파멸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지오바니는 베아트리체와 함께 독성으로부터 해독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고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인간적 특성을 풍부하게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적극적인 악한으로 보기는 어렵고, 라파치니와 발리오니가 처음부터 그를 두고 계획을 꾸민 점을 고려해보면 그에 대한 비평적 평가가 혹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베아트리체의 죽음과 관련하여 본다면 그가 그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점이 그에게는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발리오니는 라파치니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 지오바니를 이용하여 베아트리체의 독성을 제거하고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고 한 점에서 베아트리체의 죽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가장 비열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학의 법칙으로는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나 과학적 지식으로 자연의 창조력을 모방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이러한 한계와 유한성을 죽음에 의해서 깨닫게 된다. 자신의 사적인 실험 실현을 위해 인간을 대상으로 삼은 라파치니,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면서 인간 존재

를 물리적 현상으로만 단순하게 파악한 지오바니, 자신의 입지를 고수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주저하지 않은 권위주의자 발리오니는 자신들만의 가치와 이익을 강조하고 정신적 가치를 부인한 인물들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세 남자의 이기심과 질투심 같은 악의 고리가 서로 엉켜서 베아트리체를 파멸로 이끌어 갔으므로 결국 그녀의 죽음은 그녀 자신이 품고 있는 독성 때문이 아닌 외부의 독성, 즉 남성의 이기적인 권력에 의해 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References

- [1] E. Wagenknecht, *Nathaniel Hawthorne: Man and Writer*. Oxford: Oxford UP, 1961.
- [2] T. S. Yang, "From the World of Innocence to the World of Experience in the Nathaniel Hawthorne's Works", *The Mira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ssociation*, Vol.2017, No.6 pp.66-75, 2017.
- [3] Nathaniel Hawthorne.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an Authoritative Text, Backgrounds and Sources Essays in Criticism*. 1851. Ed. Seymour L. Gross. New York: Norton, 1967.
- [4] Nathaniel Hawthorne, "*Rappaccini's Daughter*" in *Great Short Works of Hawthorne*, ed. Fredrick C. Crews. New York: Haper & Row Publishers, 1967.
- [5] I. Park. *Hawthorne and the poetic attribute of diversity*. Seoul: Hansin Munhwasa, 1995.
- [6] B. Kim, "Nathaniel Hawthorne's *Rappaccini's Daughter*: Victory of evil by loss of faith", *The collection of professor's papers*, Vol.8, pp.189-215, 2004.
- [7] S. K. Seo, "Hawthorne's Feminism in *The Scarlet Letter*", *The New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46, No.3 pp.45-67, 2004.
- [8] R. Brenzo, "Beatrice Rappaccini: A Victim of Male Love and Horror," *American Literature*, Vol.48, No.2, pp.152-164, 1976.
DOI: <https://dx.doi.org/10.2307/2925069>
- [9] A. J. Kloeckman, "The Flower and the Fountain: Hawthorne's Chief Symbols in 'Rappaccini's Daughter'", *American Literature*, Vol.38, No.3, pp.107-120, 1966.
DOI: <https://dx.doi.org/10.2307/2922904>
- [10] Y. Park, "A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Ideal and Desire in Nathaniel Hawthorne's *The Minister's Black Veil* and *Rappaccini's Daughter*", *Studies 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Vol.39, No.3 pp.25-47, 2013.
- [11] K. Jang, "Wandering in Purgatory without Beatrice: on the Problem of Eden in Hawthorne's 'Rappaccini's Daughter'", *British and American Fiction*, Vol.16, No.3 pp.135-55, 2009.
- [12] M. Hong, "Head Figures and Heart Figures in Hawthorne's Short Stories", *Studies in Nathaniel Hawthorne*, Vol.1, No.1 pp.35-89, 1994.

- [13] H. Jeong, "The Dual Aspects of Science as a New Order in *Rappaccini's Daughter*", *Studies in Nathaniel Hawthorne*, Vol.3, No.1 pp.181-204, 1996.
- [14] D. Leverenz, "Working Women and Creative Doubles: Getting to *The Marble Faun*", *Hawthorne and the Real: Bicentennial Essays*. Ed. Millicent Bell. Ohio State University Press, pp.144-158, 2005.
- [15] M. D. Uroff, "The Doctors in *Rappaccini's Daughter*", *Nineteenth Century Fiction* 27, 1972.

류 다 영(Da-Young Ryu)

[중신회원]



- 2000년 2월 : 성균관 대학교 교육 대학원 영어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7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클로벌언어 교양학부 교수

<관심분야>

영미소설, 영미드라마, 영어교육, 문학과 치유, 문학과 젠더